



# 신전, 신전, 신전

한국 지역 대표

한 인 상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며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아울러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를 염려하며 기도하도록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많은 신권 역원과 성도들이 특별한 기회가 있어 교회 본부나 신전을 방문할 수 있을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 가족이 이 세상과 영원을 위한 가족으로 인봉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였으며, 복음 선교사로 떠나는 젊은 성도들이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하여 가먼트를 입지 못하고 출발해야 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을 느끼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신전을 주시라고 간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땅에 신전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는 아세아에서는 두번째요, 아세아 대륙에는 처음으로 세워지는 신전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지켰을 때 비로소 허락되는 것인 줄 우리는 모두 압니다. (교성 130:20 참조) 신전이 허락된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열 배로 늘어났습니다. 신

전을 지을 땅도 정해야 하고, 기초도 놓아야 하고, 벽도 쌓아야 하며, 지붕도 있어야 합니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다만 말일성도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신전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는(눅 9:23 참조) 자세라야 용납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사로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겸손과 용단으로 모든 결정이 너무 어려운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은 그 뒤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신전이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축복임을 알며 성도들께는 더욱 큰 축복일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하던 기도의 응답이 오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 한국 신전 건립 발표

1981년 4월 1일 오전 9:30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서는 미합중국,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9개의 새로운 신전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신전이 완성되면 세계적으로 말일성도의 신전의 수는 37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볼 대관장이 발표한 새로운 신전이 세워질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 텍사스 주의 달라스, 구아테말라의 구아테말라시, 페루의 리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웨덴의 스톡홀름, 한국의 서울, 필리핀의 마닐라,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이 신전 건립 계획은 이 교회에서 가장 크고 유서깊은 신전이 있는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서 4월 1일 아침에 열린 기자 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시카고 신전과 달라스 신전의 규모는 건평 약 720평이며 프랑크푸르트 신전은 약 350평이고 그 이외의 신전은 약 240 평이 된다.

김볼 대관장은 이미 몇 개의 부지는 매입하였으며 건축 공사는 각각 작업 계획이 완성되고 필요한 건축 허가를 얻으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9개의 신전이 관할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신전... 위스콘신, 미네소타,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전체, 아이오와, 켄터키, 캐나다의 온테리오 일부.

텍사스주의 달라스 신전... 텍사스, 오클라호마 전역과 아이칸소 및 루이지애나의 일부.

구아테말라의 구아테말라 신전... 코스타리카,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아.

페루의 리마 신전... 페루.

필리핀의 마닐라 신전... 필리핀.

한국의 서울 신전... 한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신전... 서독,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프랑스 북부 스웨덴의 스톡홀름 신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 버거그 신전... 남아프리카.

\*

## 레이건 행정부에 발탁된 몰몬 자매



1976년에 교회로 개종하여 워싱턴 디시에 살고 있는 몰몬 여성인 금년 32세의 베이 뷰캐넌 자매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미합중국의 재무성 국고 출납국장으로 지명받았다.

그녀는 레이건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전국 출납 책임자로 일했다.

상원에서는 3월 중순까지는 그녀의 지명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각료 직책으로 승인되면 그녀는 미합중국 통화 발행을 감독하게 되며 미국 정부가 인쇄하는 지폐에는 모두 그녀의 서명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그녀는 미합중국 저축 공채 프로그램 전국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뷰캐넌 자매는 미합중국 출납국장으로 일하는 두번째 몰몬이 된다. 첫번째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출납국장으로 8년간 봉사한 고 아이비 베이커 프리스트였다.\*

# 상호부조회 창립 139 주년을 맞이한 각 스테이크의 다채로운 기념 행사

## 서울 스테이크

각국의 의상을 발표한 영동 와드 자매들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3월 14일 제 4와드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에 걸쳐 기념 행사를 가졌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회 표어를 걸고 음식 자랑과 장미 자랑을 하였다. 이날 각 와드 지부의 많은 자매들은 그동안 준비한 음식과 재능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영동 와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의상을 발표하여 눈길을 모았다. \*

## 서울 동 스테이크

연극에 참여한 자매들

서울 동 스테이크는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제 1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개회를 한 후 바로 음식 솜씨 자랑 순서를 가졌는데 각 와드 지부에서 만든 독특한 음식은 참석한 회원들의구미를 돋구었다. 이어서 가진 재능 발표회에서는 연극, 무용, 음악, 체조 등을 발표하여 자매들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만든 음식 솜씨 자랑



서울 북 스테이크는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제 6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 모두에게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정성들여 만든 푸짐한 각종 음식을 대접했다. 이날 특색있는 행사로는 공과 중에 나오는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풍속 의상, 문학, 음악 그리고 무용 발표가 있었다. 이날 특히 제 6와드에서는 상호부조회를 조직하게 된 역사를 연극으로 보여 주어 더욱 이 모임을 뜻깊게 해주었다. \*

## 서울 서 스테이크



서울 서 스테이크는 지난 3월 17일 오후 5시부터 노량진에 있는 제 7와드에서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 1부 개회 순서와 제 2부는 취미 생활 발표가 있었고, 제 3부에서는 춤과 노래 자량이 있었다. 바자회를 겸한 다채로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날 시상이 있었는데 수원 와드가 투우사의 춤으로 금상을 받았고, 개봉 와드가 민속 무용으로 은상을 받았으며, 강강 수월래를 발표한 화곡 와드가 동상을 차지하였다. \*

## 동 신학 연구원 1981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졸업식

동 신학 연구원의 제8회 졸업식 및 1981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이 1981년 3월 7일 오후 6시부터 지역 신권 지도자, 졸업생, 입학생, 재학생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고 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 최 육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의 격려의 말씀과, 서 회철 교육 기구 대표의 환영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말씀한 분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고, 교육기구를 통하여 모든 회원이 진지하게 복음을 공부함으로써 간증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식이 끝난 후 졸업생, 동문, 재학생, 신입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전통적인 "떡" 파티가 있었고,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신학 연구원 동문회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 \*

## 울산 지부 물문 전시회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울산 지부에서는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물문 전시회를 가졌다. 오랫동안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는 연 4일간 700여 명이 전시회를 참관하였다. 전시회 안내는 선교사와 지방부 선교사 그리고 청소년 회원이 담당하였다.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과 포스터, 그리고 교회 출판물을 전시하였고 아울러 영화실과 다과실을 만들어 영화 관람도 하고 다과도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였다.

3월 1일 안식일에는 김 영우 울산 지방 부장의 말씀이 있었고, 끝 날인 2일에는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울산 시민에게 교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대회중에 회중 찬송을 부르는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

지난 3월 29일 노량진에 있는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1981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 모임을 한국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감리하였다.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약 700여 명의 교회役員과 회원이 모여서 "선회 사업"이란 주제로役員회를 가졌고,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일반 총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43명의 장로 신권 소유자가 탄생되었고 약 1,6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하였으며 새로운 화곡 와드 감독으로 김 광오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김 광오 감독은 과거 50여 년간 참된 교회를 찾다가 개종한 형제이다. 대회 말씀으로 먼저 김 동선 자매의 간증을 들었고 이어서 윤 화중 대전 와드 감독이 말씀하였다. 스테이크 부장단의 박 래정 형제는 4대프로그램을 하루 속히 이행하여 선조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

경 신전을 방문하였던 두 자매가 특별한 간증을 하였는데, 신전 의식을 받으려는 아침에 한 자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느 중국인이 급히 일어나라고 깨우는 것에 놀라 일어나 보니 같이 자던 자매는 이내 일어나 있어서 나를 깨웠냐고 물었으나 깨우지 않았다고 대답하여 급히 서둘러 신전으로 가서 대리 침례 의식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중국인의 성명이어서 대단히 놀랐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전하면서 새삼 신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청소년 범죄와 본드 환각제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하였다. 끝으로 한 인상 장로는 순결의 법과 순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교리와 성약 88편 118~124절을 낭독하면서 성도들은 모두 의미 깊게 읽어 보도록 당부하였다. \*

## 한국 몰몬 합창단 창단 기념 발표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몰몬 합창단이 지난 1981년 3월 28일 오후 7시부터 서대문에 위치한 유 관순 기념관에서 성대한 창단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많은 회원과 구도자 그리고 음악 애호가들이 장내를 꽉 메웠으며, 외국인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이날 합창단원들은 회원들의 기대에 못지 않은 훌륭한 발표를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합창단원들은 그동안 바쁜 생활중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습하였으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몰몬 합창단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성악을 전공한 몇몇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장은 배 영천 형제이다. 한국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는 단원들을 격려하고 합창

단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이날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거듭 말씀하였고, 아울러 합창단원들은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현재 단원은 약 6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곧 100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며, 82년에는 특별한 행사를 위하여 200명을 목표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합창단은 또한 말일성도 가정을 위하여 현재 부르고 있는 찬송가 전곡을 녹음하여 각 가정에서 쉽게 들을 수 있고 가족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지방 순회 공연도 계획하고 있는 배 영천 단장은 합창단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합창단원이 될 자격은 와드나 지부의 감독/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성실한 회원이어야 한다. \*

한국 몰몬 합창단원들

